



행복한 동행

4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2025 장애인식개선 신문

발행처: 전주송천초등학교

발행일: 2025. 4. 14.(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제45회 장애인의 날




주최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주관 한국장애인개발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어디까지 알고 있니?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 '장애인', '장애인의 날'의 정의에 대해 배우는 날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배려를 다짐하는 날도 아닙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14조)

후천성 장애인의 수가 선천성 장애인의 수다 10배나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해 아주 많은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생겼고, 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생각해 보는 날로
기억해 주세요.

-출처: 세티넷

장애인 먼저
성격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비록한 대한민국

AAC로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한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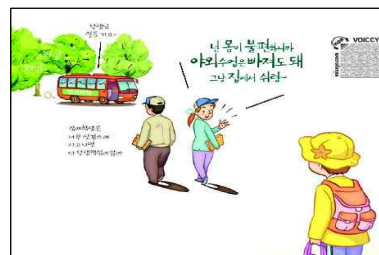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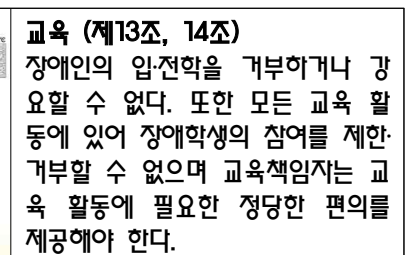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다음 손님, 주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척!
네, 녹차 라떼 한 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와~ 방금 뭐예요? Yes!
AAC입니다.
A A C
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
보완 대체 의사소통
문자 그대로 말을 보완하거나 구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지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AAC는 무척 다양해요.
책처럼 엮인 AAC 그림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AAC앱 의사소통 팔찌 글씨를 입력하면 소리를 읽어주는 보조 공학 기기
그럼 수어나 휴대전화 메시지 앱도 AAC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녹차 라떼 한 잔 주세요.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멋져요!
AAC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면 장애 유무, 국적, 연령 등에 관계 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글/그림: 강유민(서울수원초등학교 교사)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직접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아동의 보호자/후견인 등과 보조견/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p>교육 (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이동 및 교통수단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p>
 <p>성폭행의 금지 (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p>	

↑ 출처: 세티넷

←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어른이 되면] 발달장애인 장혜정씨 이야기



영화<어른이 되면>의 주연이자,
<생각 많은 둘째 언니>의 발달장애인 장혜정씨

18년 만에 동생과 살기로 했어요!

저희 자매는 18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함께 사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같이 사는 일이 왜 도전이냐고요? 동생 혜정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그곳에선 자신의 의지보다 시설의 규칙이 절대적으로 우선됐죠. 시설을 벗어나 동생이 스스로 무언가 선택하고 자립하는 건 하나의 도전인 셈입니다. 더불어 저도 오래 떨어져 살았던 장혜정이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맞춰나가는 도전을 매일 하죠.

혜정이는 어느덧 서른이 됐지만 여전히 '어른이 되면'이라는 말을 해요.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할 때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장애인이 어떻게 자립하냐?"고 말하는데 사실 비장애인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립이라는 기준이 비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높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늘 누군가가 필요하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과정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립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은 불가피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자립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 시설에 격리했어요. 혹은 헬렌 켈러 같은 인물을 통해 장애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그려 왔죠.

그렇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애인에게 좋은 삶과 비장애인에게 좋은 삶이 따로 있지 않죠. 그저 '인간'에게 좋은 삶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함께' 살고 싶습니다.



"시설이 아닌, '삶'에 집중하다" - 인간 존엄성, 사회 통합, 자기 결정권

- 출처: 세티넷

딩동댕 유치원 "별이 이야기"

유치원에서 새 친구 '별이'를 만난 어린이들이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별이 때문이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별이는 친구들을 발견하고 그제야 "안녕?"하며 손을 흔든다.((EBS '딩동댕 유치원'의 한 장면) 한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42년 전통의 어린이프로그램에 자폐스펙트럼 어린이 별이가 데뷔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전반적인 발달장애를 말한다. '딩동댕 유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보여준다.

'딩동댕'은 "별이는 우리랑 똑같은 점도 있지만 별이만의 생각이 있어. 우리 모두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이라고 일러준다. '딩동댕 유치원'은 별이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되 **'별이의 생각을 알고, 또 이해한다면 우리는 벌써 친구가 될 준비가 된 거야'**라고 말하며, **'통합교육'의 가치**를 강조한다.

- 쿠키뉴스 23. 8. 31. & 조이뉴스24 23. 8. 16. 발췌 및 인용



QR코드를 스캔하면 별이의 소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소음이 너무 두려운 친구

미국 카멜 고등학교의 2019 졸업식장에 한 학생이 두 귀를 막고 등장했다. 책 하근은 소음에 매우 민감한 학생이었다. 교장 리올로는 "책이 연단에 오르고 이어진 일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전 교생이 한마음으로 보여준 모습에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